

Types of Adaptation to College Life for Transfer Nursing Students

- Using Q Methodology -

Ick Jee Kim^{1#}, Min Kyung Jeon²⁺, Young Suk Kim³

¹ Department of Nursing, Youngsan University, 288, Junam-ro, Yangsan-si, Gyeongsangnam-do, Republic of Korea

² Department of Nursing, Kaya University, 208, Sangye-ro, Gimhae-si, Gyeongsangnam-do, Republic of Korea

³ College of Nursing, Kosin University, 262, Gamcheon-ro, Seo-gu, Busan, Republic of Korea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lassify the types of adaptation to college life among transfer nursing students and suggest the strategies for helping their adaptation according to the types. Q methodology was used such that thirty-seven Q statements were selected as the Q sample based on the literature, reported data and interviews and Q sorting was conducted by thirty-five transfer nursing student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the PQMethod program. As a result of the study, four distinctive types of adaptation to college life for transfer nursing students were found such as Type I (Future Anxiety), Type II (Indifference), Type III (Harmony), and Type IV (Relations Directivity). Of these, the 'Future Anxiety' and 'Harmony' types showed a positive aspect in adaptation, whereas the 'Indifference' and 'Relations Directivity' types showed a negative aspect. Based on the findings, various strategies were discussed to assist transfer nursing students for their effective adaptation to school life by their types.

Key words: nursing, transfer student, adaptation of college life, Q methodology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취업의 유리함이나 대소재지 지역에서의 취업 가능성과 같은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대학 간 학생들의 편입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Kim & Hwang, 2012; Oh, 2006). 2016년 발표된 교육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편입생 수는 총 33,928명이었고 이 중 간호학과에 해당하는 의학계열의 편입자는 3,065명으로 나타났다(Korean

Educational Statistics Service, 2016). 편입생들은 대학 신입생과는 다르게 이미 타 대학에서 대학생활을 경험하고 재 수학의 기회를 갖는 것이므로 연령, 전공, 그리고 새로운 대학문화 적응 등 다양한 면에서 여러 가지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Shin, *et. al.*, 2003).

대학생활의 적응이란, 학생 개인이 대학이라는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변화와 도전에 적절히 반응하고 대처하는 것이다(Seo & Song, 2010). 뿐만 아니라 학생, 교수, 직원 등 대학조직 구성원들과 원만한

The 1st author: Ick Jee Kim, Tel. +82-55-380-9439, e-mail, kimickjee@gmail.com, ijkim@ysu.ac.kr

+ Corresponding author: Min Kyung Jeon, Tel. +82-55-330-1043, e-mail, angi99@kaya.ac.kr

상호작용을 통해 학교의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함으로써 학습자의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을 의미한다(Kim & Kim, 2015). 편입생은 새로운 제도와 낮은 문화의 환경에 적응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적 차원의 위기를 겪게 된다. 따라서 편입생들은 학업적 동기와 열의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도전하여 성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편입한 대학에 적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적응에 실패하게 될 경우에는 좌절과 후회 같은 개인의 내적인 문제는 물론 학문적 성취의 저하,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의 부적응 등의 파급효과까지도 불러일으키게 된다(Shim, 2009).

한편, 간호학과는 사회가 요구하는 유능한 간호사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간호학과 교육과정에는 학교 내에서의 학습과 임상현장에서의 실습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이러한 교육과정을 달성해가는 과정에서 독특한 보건의료 전문가의 문화를 경험하고 정체성을 확립해간다(Kim & Hwang, 2012). 그러나 편입생의 경우 타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형성된 학문적 정체성을 지닌 채 들어오게 되므로 이 과정의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진다. 이것은 간호학과 편입생들이 기존 학생들과 융화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에 적응함으로써 보건의료 전문직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며(Kim, *et. al.*, 2005), 재학생들이 전공과목을 수강하면서 구축해 놓은 소그룹과 정규수업 외의 소모임 활동 등을 통해 이미 형성한 집단에 동화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Yeom, 2009). 이러한 점들로 보아, 편입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우며, 특히 간호학과에 편입한 학생들은 학과의 특성상 다른 과 편입생들보다 적응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가질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편입생 수의 증가에 따라 이들의 적응을 안내하고 지도하는 일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특히, 편입생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일은 그들을 지도하는 교수들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Yeom, 2009). 따라서 간호학과의 교수진들이 편입생과의 상담이나 제반 정책을 통해 그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간호학과 편입생에 관한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최근에 편입생의 첫 학기의 대학생활 체험에 관한 연구(Kim & Hwang, 2012)가 한 편 이루어졌었고, 10여 년 전에 편입생들의 정체성 변화 경험(Kim, *et. al.*, 2005)과 간호학과에 온 편입생의 체험(Shin, *et. al.*, 2003)에 관한 연구가 모두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수행되어졌었다. 간호학과 편입생을 주제로 한 국외의 연구로는 여러 편이 있었으나(Cameron, 2005; Rodriguez-Kiino, 2013; Townsend, 1993), 한국의 실정과 비교하였을 때 간호학과 교육과정이 달랐고 편입 제도 역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처럼 간호학과 편입생들이 편입 후 대학생활을 통해 어떤 성취와 만족을 얻고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실정이었으며 대학 편입학생의 편입 후 경험에 관한 심층 연구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였다.

편입을 선택한 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편입생들이 편입 후 어떠한 태도로 학교생활에 임하며 지속해 가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재학생이 된 편입학생들에 대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지도 전략 수립 차원에서 역시 편입학생들의 편입 후 대학생활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Q 방법론을 적용하여 간호학과 편입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해가는 유형을 탐색하여 이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Q 방법론은 개인의 주관적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어떤 대상이나 주제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의 구조를 도출해 내는 방법으로서, 개인이 자신과 관계된 주변에 관해 어떠한 관점을 가질 수 있다고 기대되는 모든 문제에 있어 중대한 요인들을 쉽게 밝혀 내준다. 또한 Q 방법론은 연구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연구 참여자의 주관성에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하는 연구로서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의 생각, 견해, 의견 등을 광범위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Brown, 1980).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지닌 Q 방법론은 본 연구의 취지에 적합할

Table 1. Q statements

| No. | Statements |
|-----|---|
| 1 | Friends who can share ideas and experiences and supporter in my college life are enough. |
| 2 | I am worried about burden due to age for registered students. |
| 3 | I would like to help students with various methods. |
| 4 | An economic burden is too heavy according to transfer. |
| 5 | The systems that are just for transfer students are needed. |
| 6 | It has the limit to form a deep bond with the registered students even though over time. |
| 7 | I am doing my best in the current position. |
| 8 | I would like to form more personal friendships with peer transfer students rather than the registered students. |
| 9 | I have felt a mind to give up in midway. |
| 10 | I do my best to associate quickly with the new college system. |
| 11 | I do not belong in any other grade and I feel like outsider. |
| 12 | Satisfaction of life(meeting with friends, free time, etc.) after the incorporation has been improved. |
| 13 | The main cause of incorporation is an employment than a mission. |
| 14 | There is much loadings according to the beginning of the new major. |
| 15 | Confidence gradually increased after the incorporation compared to the previous. |
| 16 | It is difficult to adapt to the nursing department because of the unique characteristics. |
| 17 | The meetings for senior and junior transfer students are needed. |
| 18 | I would recommend the incorporation into the department of nursing. |
| 19 | I would not like to be known that I am a transfer student. |
| 20 | It is hard physically, because it requires the educational process that needs lots of credits. |
| 21 | There are big alienated sense and difference due to the nursing department culture which is formed already. |
| 22 | As late as I started I want to be recognized. |
| 23 | It is hard because of insufficient information about nursing department like credits, division of completion, clinic practice, and etc. |
| 24 | I regret about starting study in nursing. |
| 25 | The contents of the lessons of nursing are interesting. |
| 26 | The effect of group works takes a lot of part in campus life adaptation. |
| 27 | I have worried about the disadvantages due to my age when getting a job. |
| 28 | Transfer student life is hard, but it's worth it. |
| 29 | I am trying not to stand out. |
| 30 | The lectures and the tests processed during a lack of basic knowledge are embarrassed to transferred students. |
| 31 | I have been satisfied with the relationships with the professors. |
| 32 | It is difficult to use the available support services of the new college. |
| 33 | I have to complete this course because this choice is made by myself. |
| 34 | There is a strong attachment about this transfer college. |
| 35 | I constantly question myself whether I can finish well. |
| 36 | A preoccupation about transfer students is hard for me. |
| 37 | I have played a leading role now in the department work. |

것이라 생각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과 편입생의 학교생활 적응유형을 파악하고 유형별 특성을 밝히기 위하여 Q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이다.

2. 표집 방법

1) Q 모집단 및 Q 표본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편입생 또는 기타 편입생과 관련된 선행연구 및 보도자료, 그리고 개인 심층면담 자료를 바탕으로 간호학과 편입생의 학교생활 적응유형에 관한 Q 모집단을 구성하였다. 심층면담의 참여자로는 성별이 서로 다른 2명의 간호학과 편입생들로서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자로 선정하였다. 심층면담 시 주요 질문으로는 ‘간호학과에 편입한 이후 학교생활은 어떠하였습니까?’, ‘간호학과 편입 이후 학교생활의 적응에 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등이었으며, 개인별 심층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참여자 1명 당 약 1시간 ~ 1시간 30분 가량이었다.

총 172개의 문항이 수집되었으며 연구자는 수집된 문항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어가며 진술문의 중복여부와 대표성을 고려해 범주화해 나갔다. 172개의 문항은 처음 24개의 영역에서 10개의 영역으로 범주화되었으며 각 범주별 대표되는 문항들을 추출해나갔다. 문항의 추출 과정 중 편입생을 지도하고 있는 간호학과 교수 1인과 현재 간호학과에 편입하여 재학 중에 있는 학생 1인에게 지속적인 자문과 검토를 구하였으며 총 37개의 Q 표본을 선정하였다. 추출된 37개의 문항을 가지고 간호학과 편입생 1인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범주별 대표성이 모호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문장들은 의미

가 보다 구체적으로 전해지도록 수정 및 보완과정을 거쳐 최종 37문항의 Q 진술문을 확보하였다(〈Table 1〉).

2) P 표본의 선정

Q 방법론은 개인 간의 차이보다는 개인 내의 의미성 또는 중요성의 차이를 강조하는 연구방법으로 대상자의 수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Brown, 1980).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편입생의 적응에 관한 인식을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별, 나이, 학년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P 표본을 선정하였다. Q 방법론을 이용한 포괄적 연구는 P 표본 수가 30명에서 50명

Table 2. Factor matrix and general characteristics

| Q Sort | Loadings | | | | General Characteristics | | | | | | |
|--------|----------|---------|---------|---------|-------------------------|-------|-------|-----|-------|-----|-----|
| | Type 1 | Type 2 | Type 3 | Type 4 | Gender | Age | | | Grade | | |
| | | | | | | 19~29 | 30~39 | ≥40 | 2nd | 3rd | 4th |
| 1 | 0.3827 | 0.1863 | 0.5458X | 0.2404 | F | ○ | | | | | ○ |
| 2 | -0.2993 | 0.6442 | 0.2496 | 0.1786 | F | | ○ | | | ○ | |
| 3 | -0.0649 | 0.8009X | 0.2857 | 0.0923 | F | | ○ | | | ○ | |
| 4 | 0.0520 | 0.5807X | -0.0536 | -0.0985 | F | | ○ | | | ○ | |
| 5 | 0.3162 | 0.6991X | 0.1417 | 0.1350 | F | | ○ | | | ○ | |
| 6 | 0.2677 | 0.7998X | -0.0326 | -0.0902 | F | ○ | | | ○ | | |
| 7 | 0.6957X | 0.2234 | 0.1807 | -0.1303 | F | ○ | | | ○ | | |
| 8 | 0.1338 | -0.0415 | 0.7406X | 0.0082 | F | ○ | | | ○ | | |
| 9 | 0.7181X | 0.3019 | 0.1285 | 0.1892 | F | ○ | | | ○ | | |
| 10 | 0.7820X | 0.0695 | -0.0505 | 0.0117 | M | ○ | | | | ○ | |
| 11 | 0.5825 | -0.2943 | 0.0961 | 0.2384 | M | ○ | | | | ○ | |
| 12 | 0.1588 | -0.0516 | 0.1903 | 0.1008 | F | ○ | | | | ○ | |
| 13 | 0.2585 | 0.1313 | 0.2253 | 0.1513 | M | ○ | | | | ○ | |
| 14 | 0.2876 | 0.6427X | 0.1119 | -0.1160 | F | ○ | | | ○ | | |
| 15 | 0.6148X | 0.1755 | 0.2416 | 0.3487 | M | ○ | | | ○ | | |
| 16 | 0.3946 | 0.2117 | 0.4218 | -0.2163 | F | ○ | | | | | ○ |
| 17 | 0.2673 | 0.2232 | 0.0971 | 0.0760 | M | ○ | | | ○ | | |
| 18 | 0.8556X | -0.0451 | 0.1784 | 0.0255 | F | ○ | | | | ○ | |
| 19 | 0.6090X | 0.2479 | 0.3933 | -0.0778 | F | ○ | | | ○ | | |
| 20 | 0.3290 | 0.2445 | 0.1581 | 0.3209 | F | ○ | | | ○ | | |
| 21 | 0.2659 | 0.1978 | 0.7066X | -0.0004 | F | ○ | | | ○ | | |
| 22 | 0.1751 | 0.5903X | -0.2971 | -0.0791 | F | ○ | | | | | ○ |
| 23 | 0.0300 | 0.7362X | 0.1168 | 0.0541 | M | ○ | | | | | ○ |
| 24 | 0.5306 | 0.3936 | 0.0659 | 0.0768 | F | ○ | | | | ○ | |
| 25 | 0.0004 | 0.0151 | 0.0256 | 0.9147X | F | ○ | | | | ○ | |
| 26 | 0.3271 | 0.6168X | 0.1853 | 0.1339 | M | | ○ | | ○ | | |
| 27 | 0.4354 | 0.1357 | 0.0639 | 0.4318 | F | | | ○ | | ○ | |
| 28 | 0.1880 | -0.2542 | 0.2546 | 0.2504 | M | ○ | | | | ○ | |
| 29 | 0.6239X | 0.2104 | 0.4160 | 0.0071 | F | ○ | | | ○ | | |
| 30 | 0.2964 | 0.1715 | -0.0036 | 0.0427 | F | | ○ | | ○ | | |
| 31 | 0.2134 | 0.1607 | 0.5997 | 0.1328 | F | ○ | | | ○ | | |
| 32 | 0.7041X | 0.0224 | 0.1854 | -0.2069 | F | ○ | | | | | ○ |
| 33 | 0.0516 | 0.4867 | 0.0780 | -0.0659 | F | ○ | | | | | ○ |
| 34 | 0.0116 | 0.1156 | 0.5300 | -0.1529 | M | | ○ | | | | ○ |
| 35 | 0.7377X | 0.0869 | 0.0855 | 0.2250 | F | | ○ | | | | ○ |

수준을 의미한다(Kim, 2007). 본 연구에서는 총 36명의 응답자 중 Q 소팅 시 불성실하다고 생각되는 1명을 제외한 3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Table 2〉).

3) Q 소팅

Q 소팅을 위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37개의 Q 표본을 P 표본으로 선정된 대상자들에게 제시한 후 연구대상자의 인식이나 판단에 따라 Q 표본을 강제 분포시키도록 하였다. 대상자에게 Q 표본을 먼저 읽게 한 후 긍정(+), 중립(0), 부정(-)의 세부분으로 나누게 하고 다음으로 긍정(부정)진술문 중 가장 긍정(부정)하는 것을 차례로 골라 바깥(±4)에서 안쪽으로 분류하도록 하여 중립(0)에서 마무리하도록 하였다. 양 끝(±4)에 놓인 진술문 4개에 대해서는 선택한 이유를 면담 및 서면으로 받아두었다.

4) 자료수집기간 및 자료분석방법

자료수집기간은 2015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PQMethod program에 의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으로 처리하였다. 이상적인 요인 수의 결정을 위해 아이젠 값 1.0 이상으로서 설명 변량이 40% 이상인 것을 고려하여 요인의 수를 다양하게 입력시켰으며 배리맥스(varimax rotation) 방법으로 회전시켰다. 산출된 결과의 각 요인 간 상관관계를 고려한 결과 요인 간 고유한 특성이 가장 잘 구별된다고 판단되어진 4개의 유형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요인에 대한 해석은 각 유형별로 양

극단(±3, ±4)에 위치한 항목들의 요인가와 표준점수에 근거한 진술문을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각 요인별 인자가중치가 높은 사람들의 진술 자료를 근거로 유형의 특성을 밝혔다.

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Y대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구의 승인을 받았다(YSUIRB-201511-HR-007-02).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 및 비밀유지와 익명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본인이 원치 않을 시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음과 종료 후 자료의 폐기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III. 연구결과

1. Q 유형의 형성

간호학과 편입생의 학교생활 적응 유형을 분석한 결과 4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이 때 4개 유형은 전체 변량의 48%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요인별 설명력은 제1유형이 19%, 제2유형이 15%, 제3유형이 9%, 제4유형이 5%로 나타나 제1유형이 대상자의 주관적 견해를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다(〈Table 3〉).

각 유형 간의 상관관계는 0.27에서 0.49까지 나타나 유형 간 상관관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Eigen value, variance, and number of loading

| | Type 1 | Type 2 | Type 3 | Type 4 |
|-------------------|---------|--------|--------|--------|
| Eigen value | 11.6086 | 4.1279 | 2.2086 | 1.9811 |
| Variance(%) | 19 | 15 | 9 | 5 |
| Number of Loading | 9 | 8 | 3 | 1 |

Table 4. Correlation between types

| | Type 1 | Type 2 | Type 3 | Type 4 |
|--------|--------|--------|--------|--------|
| Type 1 | 1.0000 | 0.3789 | 0.4932 | 0.1016 |
| Type 2 | 0.3789 | 1.0000 | 0.2715 | 0.0240 |
| Type 3 | 0.4932 | 0.2715 | 1.0000 | 0.1061 |
| Type 4 | 0.1016 | 0.0240 | 0.1061 | 1.0000 |

2. 유형별 특징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각 유형에 속하는 P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 후,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 5개와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 5개의 배열을 중심으로 각 유형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각 유형에서 인자가중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 유형을 대표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사람임을 의미한다(〈Table 2〉).

1) 유형 1: 미래불안형

제1유형에 속한 대상자는 총 9명으로 이 중 8명의 학생들은 30세 미만으로 분류되었으며 해당 학년은 대부분 2학년이었다.

제1유형은 간호학을 시작한 것에 대해 후회가 없으며 자신이 선택한 것이기에 끝까지 해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진술문 24, 33). 편입생활이 힘들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진술문 7, 28). 또한 늦게 시작한 만큼 인정받으려는 생각이 강하며 나이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다(진술문 22, 27). 제1유형에 속하는 학생들은 ‘편입생임이 알려지는 것이 싫다’ 또는 ‘주위에서 편입생이라는 선입견으로 대하는 것이 싫다’ 등에는 강한 비동의를 보이고 있으며(진술문 19, 36) 이미 형성되어 있는 학과 문화로 인해 경험하는 이질감과 소외감 역시 높지 않다(진술문 21)(〈Table 5〉).

유형 1의 전형에서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18번 대상자(인자가중치 0.8556)의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기존 재학생들이 거리낌 없이 다가와주고 부담 없이 대해 주며, 시간이 지날수록 기존 재학생들과 더욱 친해지고

있음을 느낀다’, ‘과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본인이 선택한 것이기에 끝까지 해내고 싶으며, 한번 더 시작하는 만큼 열심히 하고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크다’라고 진술하였다. 10번 대상자(인자가중치 0.7820)는 본인의 미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나타내었다. ‘편입생들은 재학생과 출발점이 다르며 위계적 문화가 짙은 간호문화에서는 나이가 많으면 꺼려하는 경향이 있을 듯하다. 따라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고민 중 제일 큰 걱정 중 하나가 나이로 인한 취업 걱정이다’.

이상에서 볼 때 제1유형에서는 편입 후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과정 중 나이로 인해 겪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유형을 ‘미래불안형’이라 명명하였다.

2) 유형 2: 무관심형

제1유형에 속한 대상자는 총 8명으로 연령과 학년 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다.

유형 2는 간호학과만의 독특성으로 인해 학교생활의 적응이 힘들고(진술문 16) 새로운 전공의 시작과 부족한 기초지식, 그리고 지속되는 수업과 시험 등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진술문 14, 30). 또한 나이로 인한 취업 등 미래 진로를 고민하고 있으며(진술문 27) 편입 후 삶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가 모두 저하되어 있다(진술문 12, 15). 편입한 학교에 대한 애착도 낮아, 학과 일에 소극적인 참여를 보이며(진술문 34, 37) 주변에 간호학과 편입을 추천할 마음이 없다(진술문 18).

유형 2의 전형 중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3번 대상

Table 5. Statements for type 1

| No. | Statements | Score |
|-----|---|-------|
| 33 | I have to complete this course because this choice is made by myself. | 4 |
| 22 | As late as I started I want to be recognized. | 4 |
| 27 | I have worried about the disadvantages due to my age when getting a job. | 3 |
| 7 | I am doing my best in the current position. | 3 |
| 28 | Transfer student life is hard, but it's worth it. | 3 |
| 21 | There are big alienated sense and difference due to the nursing department culture which is formed already. | -3 |
| 35 | I constantly question myself whether I can finish well. | -3 |
| 36 | A preoccupation about transfer students is hard for me. | -3 |
| 19 | I would not like to be known that I am a transfer student. | -4 |
| 24 | I regret about starting study in nursing. | -4 |

Table 6. Statements for type 2

| No. | Statements | Score |
|-----|--|-------|
| 33 | I have to complete this course because this choice is made by myself. | 4 |
| 16 | It is difficult to adapt to the nursing department because of the unique characteristics. | 4 |
| 14 | There is much loadings according to the beginning of the new major. | 3 |
| 30 | The lectures and the tests processed during a lack of basic knowledge are embarrassed to transferred students. | 3 |
| 27 | I have worried about the disadvantages due to my age when getting a job. | 3 |
| 18 | I would recommend the incorporation into the department of nursing. | -3 |
| 15 | Confidence gradually increased after the incorporation compared to the previous. | -3 |
| 12 | Satisfaction of life(meeting with friends, free time, etc.) after the incorporation has been improved. | -3 |
| 34 | There is a strong attachment about this transfer college. | -4 |
| 37 | I have played a leading role now in the department work. | -4 |

자(인자가중치 0.8009)는 ‘간호학과는 타 학과와는 다르게 독특한 집단적 문화를 지니고 있으며 상하 위계적 서열의 특징이 매우 강하므로 학과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다’고 진술하였다. 3번 대상자는 편입한 이유가 사명감이나 소명감보다 취업의 목적이 크다고 하였으며 학과 일은 잘 모르는 것이 많으므로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6번 대상자(인자가중치 0.7998)는 이전 학교에 비해 학사일정이 매우 빡빡하여 적응이 어려우며 학업 시 체력적으로도 힘들다고 하였다. 또한 여가시간을 내기가 힘들어 편입 후 삶의 만족도가 이전보다 저하되었으며 편입한 학교에는 현재 적응단계라 아직 큰 애착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유형 2의 경우, 간호학과를 선택하기는 하였으나 간호학과만이 지니는 특성으로 인해 융화되는데 어려움을 느껴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학교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2유형을 ‘무관심형’이라 명명하였다(Table 6)).

3) 유형 3: 융화형

제3유형에 속한 대상자는 총 3명으로 모두 30세 미

만으로 분류되었다.

유형 3은 편입생활은 힘들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으며 편입한 학교에 대한 애착도 크다(진술문 28, 34). 이들은 편입생이라는 주위의 불편한 편견을 느끼지 못하며 기존의 재학생들과 잘 어울린다(진술문 34, 11, 36). 유형 3은 학업 또는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있지만 현재 본인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진술문 7, 24, 14, 4) 나이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재학생들과의 관계나 장래에 대한 걱정은 보이지 않는다(진술문 2, 27).

유형 3의 전형 중 인자가중치가 높은 8번 대상자(인자가중치 0.7406)는 간호학과에 오는 꿈을 이루었기에 비록 학업에 대한 부담이 크기는 하나 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더 열심히 생활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21번 대상자(인자가중치 0.7066)는 본인이 선택한 간호학이고 누구도 자신을 대신할 수 없기에 끝까지 해내야 한다고 말하였으며 편입생에 대한 주위의 시선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님께 경제적인 부담을 안겨드리는 것에 있어 부담을 느낀다고 하였다.

제3유형은 편입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있기는 하

Table 7. Statements for type 3

| No. | Statements | Score |
|-----|--|-------|
| 7 | I am doing my best in the current position. | 4 |
| 14 | There is much loadings according to the beginning of the new major. | 4 |
| 4 | An economic burden is too heavy according to transfer. | 3 |
| 28 | Transfer student life is hard, but it's worth it. | 3 |
| 34 | There is a strong attachment about this transfer college. | 3 |
| 11 | I do not belong in any other grade and I feel like outsider. | -3 |
| 24 | I regret about starting study in nursing. | -3 |
| 36 | A preoccupation about transfer students is hard for me. | -3 |
| 2 | I am worried about burden due to age for registered students. | -4 |
| 27 | I have worried about the disadvantages due to my age when getting a job. | -4 |

Table 8. Statements for type 4

| No. | Statements | Score |
|-----|--|-------|
| 7 | I am doing my best in the current position. | 4 |
| 17 | The meetings for senior and junior transfer students are needed. | 4 |
| 5 | The systems that are just for transfer students are needed. | 3 |
| 12 | Satisfaction of life(meeting with friends, free time, etc.) after the incorporation has been improved. | 3 |
| 26 | The effect of group works takes a lot of part in campus life adaptation. | 3 |
| 16 | It is difficult to adapt to the nursing department because of the unique characteristics. | -3 |
| 27 | I have worried about the disadvantages due to my age when getting a job. | -3 |
| 31 | I have been satisfied with the relationships with the professors. | -3 |
| 18 | I would recommend the incorporation into the department of nursing. | -4 |
| 22 | As late as I started I want to be recognized. | -4 |

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으며 학교에 대한 애착이 크고 재학생들과의 관계가 조화롭다. 따라서 제3유형을 ‘융화형’이라 명명하였다(〈Table 7〉).

4) 유형 4: 관계지향형

제4유형에 속한 대상자는 총 1명으로 분류되었다.

유형 4에서는 편입생 선후배 간 모임이나 편입생을 위한 제도의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하고 있다(진술문 5, 17). 또한 학교생활 적응 시 조별활동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한다(진술문 26). 유형 4는 어느 한 학년에도 속하지 못하고 겹돌고 있다는 진술문에 약한 동의를 보였으며(진술문 11) 동시에 교수님과의 인간관계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진술문 31).

유형 4의 전형은 25번 대상자(인자기중치 0.9147) 한 명으로 지인들에게 간호학과 편입을 추천하는데 있어 강력한 비동의를 보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편입 후 기초가 부족한 상태에서 전공을 따라오기가 많이 어려우므로 차라리 편입이 아닌 재입학을 강력히 추천하기 위해서였다. 이 외의 의견으로는 공부로서 인정받는 것보다는 과정을 잘 마치고 순탄하게 졸업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이를 종합해볼 때 제4유형은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하여 편입생 선·후배 간의 연계성 또는 기존 재학생이나 교수님 간의 관계적 친밀감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4유형을 ‘관계지향형’이라고 명명하였다(〈Table 8〉).

IV. 논의

간호학과 편입생의 학교생활 적응 유형을 분석한 결과 ‘미래불안형’, ‘무관심형’, ‘융화형’, ‘관계지향형’의 총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졌다.

본 연구의 논의에서는 연구결과로부터 얻은 간호학과 편입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4가지 적응 유형의 특성을 요약하고 이를 근거로 간호학과 편입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및 만족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1유형인 ‘미래불안형’은 뒤늦게 시작한 자신의 선택에 대하여 만족하기는 하나, 취업 시 나이로 인하여 경험할지도 모를 불이익에 대하여 걱정하는 성향을 보여준다. 이는 간호학과 편입생의 첫 학기 대학생활 체험에 대한 Kim & Hwang(2012)의 연구에서 ‘불투명해진 미래를 걱정함’의 경험과 유사한 결과이며, 이것은 또한 오래전 보고되어진 간호학과 편입생의 체험에 대한 Shin, *et. al.*(2003)의 연구에서 ‘연령차이로 인한 부담감’과도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취업 시 나이제한을 두는 한국사회의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아래 연차는 윗 연차보다 나이가 어려야 한다는 한국사회의 유교적인 문화와 간호조직에 강하게 남아있는 서열문화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제1유형의 경우, 편입생들이 미래 자신의 계획을 확고히 재설정하고 이러한 계획을 달성해가는 과정에서 자아효능감과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하는 교수진들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즉, 상담을 통해 편입생들의 성공적인 취업과정 사례를 소개

하거나, 성공성취동기 및 타인인정동기가 높은 전공자는 성공과정에 자신을 가지게 되므로(Kim & Kim, 2013)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교수자의 지속적인 편입생들에 대한 관심과 격려, 칭찬과 지지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제2유형인 ‘무관심형’은 편입과 동시에 타 학과와는 다른 간호학과만의 분위기, 학업에 대한 부담감, 미래의 불안감 등 여러 측면에서 간호 문화의 벽에 부딪히게 되면서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유형이다. 또한 그 결과 자신감과 삶의 만족도가 저하되면서 학교 일에는 무관심화되어가는 유형이다. 즉, 학과 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아니하며 학교에 대한 애착 역시 가지고 있지 않다. 간호학을 선택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는 않으나, 편입 당시 가졌던 간호학에 대한 가치나 포부 등은 이미 소멸되었으며 단지 취업의 목적 또는 자신이 선택하였다는 이유로 버티고 있는 유형이다. 이는 편입생의 정체성 변화 경험에 대한 Kim, *et. al.*(2005)의 연구에서 보고한 ‘간호 문화에 부딪침’, ‘자기만의 세계 구축하기’의 경험과 유사한 맥락의 결과로서 편입생이 간호학과에 들어와서 문화의 벽을 느끼게 되어 소외감을 느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이것은 편입생을 대상으로 한 Lester *et. al.*(2013)과 Townsend & Wilson(2006)의 연구에서 편입한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참여하면서 소속감을 느꼈으며 학교 및 가족이나 지역사회 맥락에서의 사회적 참여를 별도의 분야로 분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 것과는 상반된 결과였다. 편입생들은 스스로 자신감이 높을수록 학생 활동 및 학교 행사에 많이 참여하고 새 학교에 잘 적응하게 된다(Laanan, 2007). 따라서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이 편입한 학교로의 적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마련하거나 적극적인 학생활동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켜 무관심하거나 방관자의 태도로부터 벗어나도록 유도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편입생들이 교실을 익숙한 장소로 인식하도록 만들어, 이 공간을 통해 학업의 참여 뿐 아니라 사회적 참여의 연결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 스

로가 적응을 위한 무수히 많은 전략과 자원들을 기꺼이 찾아보도록 하고 유연성 있는 개인의 능력을 포괄할 수 있는 가치있는 대처기술(Rodriguez-Kiino, 2013)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 과정은 편입생들이 그들의 새로운 자원 속에서 다양한 지지체계를 사용하게 함으로서 그들을 성공적인 편입생활로 이끌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제3유형인 ‘융합형’은 간호에 대한 소명의식과 가치를 지니며 본인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향을 보인다. 또한 재학생과 편입생이라는 구분 없이 모교라는 애착을 지니고 적극적인 학과활동참여와 친밀한 대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 유형은 간호학과로의 편입 선택 동기가 분명하여 대체적으로 제도, 문화 및 인간 관계 등 새로이 접하는 학교생활에 잘 흡수되어가는 유형이다. 이러한 긍정적이고 적극성을 띄는 제3유형 학생들의 간호학과로의 유입은 양질의 간호사를 양성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한편, 제3유형에서는 편입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이 표출되었는데, 이는 Shin, *et. al.*(2003)의 연구에서 편입 생활동안 부모에게 경제적 의존을 하게 되면서 미안함과 부담감을 느끼며 학교생활동안 장학금, 아르바이트에 접근하기 어려운 점들을 ‘경제적 부담감’이라는 범주로 나타낸 것과 유사한 결과였다. 유형 3에서는 편입 전부터 학생들이 재정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세우도록 하여 수업 중 경제적인 부담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교수진은 편입생 지도 시 재정적 어려움의 문제를 파악하고 교내 편입생을 위한 장학제도 등이 있을 경우 해당학생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잘 활용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제4유형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한 명(25번 대상자)으로서 제4유형 전체를 설명하고 있다. 대상자의 의견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주변인의 간호학과 편입을 추천하는 것에 있어 강력한 비동의를 나타낸 것에 관한 이유이다. 즉 편입 후 부족한 기초과목 아래 전공을 따라하기가 많이 어려우므로 편입보다는 차라리 재입학할 것을 강

력히 추천하였는데, 이것은 편입생들이 겪는 학업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점은 간호학과 편입생을 대상으로 한 오래 전의 연구(Kim, *et. al.*, 2005; Shin, *et. al.*, 2003)에서도 드러난 것으로 보아, 시대가 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호학과의 학업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제4유형의 또 다른 특징으로 편입생 모집의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강조한 점과 교수와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만족도가 낮은 점이 제기되어지는 것이다. 간호학과 편입생들에게 기본적 지지체계인 가족, 친구, 학교라는 공간에서 직접적이고 정직한 피드백이 제공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것은 동시에 자존감과 자기효율성을 강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Rodriguez-Kiino, 2013). 또한 학생들이 지도자와 친밀하고 가깝다고 느끼는 것으로 인하여 학생 스스로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고 지도자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이 원만할 때 학생들의 미래 포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Kim & Kim, 2013) 제4유형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간호학과 교수진과 편입생들의 상호작용을 보다 친밀하게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상담이나 기타 프로그램의 발굴 또는 활용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Q 방법론을 적용하여 간호학과 편입생의 학교생활 적응 유형을 파악하고 구분된 각 유형에 따라 적응을 돕기 위한 전략을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간호학과 편입생의 적응 유형은 ‘미래불안형’, ‘무관심형’, ‘융화형’, ‘관계지향형’의 모두 4가지로 확인되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간호학과 편입생 중 제1유형과 제3유형은 적응에 있어 긍정적인 양상을 보인 반면, 제2유형과 제4유형은 적응에 있어 부정적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간호학과 편입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자

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하여 편입생이 있는 간호학과 교수들이 편입생을 대상으로 수업 및 전반적인 대학생활을 효과적으로 지도하는데 도움이 될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다음으로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될 간호학과 미래의 편입생들에게 편입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바탕으로 간호학과 편입생의 적응을 돕기 위한 실제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제언하고자 한다.

References

- Brown, Steven R. 1980. *Political Subjectivity: Applications of Q Methodology in Political Science*. Yale University Press.
- Cameron, Cherylyn. 2005. Experiences of Transfer Students in a Collaborative Baccalaureate Nursing Program. *Community College Review*. 33(2): 22-44.
- Kim, Bo Na and Ee Gyeong Kim. 2015. The Difference of Student Adaptation Level to University Life Depending upon Admission Methods. *Education Culture Research*. 21(3): 5-25.
- Kim, Hae Jung and Bo Ra Kim. 2013. The Influence of Interaction between Dance Teachers and Students on Achievement Motivation for Dance and Future Aspirations. *The Journal of DSDH*. 29: 63-81.
- Kim, Kon Hee and Eun Hee Hwang. 2012. The Lived Experience of a Student Transferring into the Nursing at the First Semester. *Korean Review of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8(5): 123-142.
- Kim, Sun Eun. 2007. *Q Methodology and Social Science*. Busan: Kumjeong Publishing Co.
- Kim, Yeong Kyeong, Myung Ok Cho, and Jin Hyang Yang. 2005. The Experiences of Identity Developing among the Enrolled Nursing Students.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6(1): 15-31.
- Korean Educational Statistics Service. 2016. *Statistical Yearbook of Education*. <http://kess.kedi.re.kr/index>.
- Lester, Jaime, Jeannie Brown Leonard, and David Mathias. 2013. Transfer Student Engagement: Blurring of Social and

- Academic Engagement. *Community College Review*. 41(3): 202-222.
- Oh, Young Jae. 2006. A Study on the University Life of Transfer Students after Transference.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24(2): 451-474.
- Rodriguez-Kiino, Diane. 2013. Supporting Students in Transition: Perspectives and Experiences of Community College Transfer Students.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the Community College*. 20(2): 1-10.
- Santos Laanan, F. 2007. Studying Transfer Students: Part II: Dimensions of Transfer Students' Adjustment. *Community College Journal of Research and Practice*. 31(1): 37-59.
- Seo, Hyun and Sun Hwa Song. 2010. A Study on the Adjustment of New Students at th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o Their Campus Lif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5(1). 361-391.
- Shim, Jae Eun. 2009. Qualitative Research on the Adaptation of Campus Life for Transferred Students. *Korea Journal of Psychology Academic Conference Materials*. 2009(1): 48-49.
- Shin, Kyung Rim, Eun Jeong Cha, and Young Hye Kim. 2003. The Lived Experience of a Student Transferring into the Nursing Progra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3(6): 722-730.
- Townsend, Barbara K and Kristin Wilson. 2006. A Hand Hold for a Little Bit: Factors Facilitating the Success of Community College Transfer Students to a Large Research University.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7(4): 439-456.
- Townsend, Barbara K. 1993. *Community College Transfer Students in an Urban University: Survival of the Fittest?*.
- Yeom, Ji Sook. 2009. A Study of the Experiences of Transfer Student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4(2): 239-263.
- 교육부. 2016. 교육통계연보. 서울: 교육부. <http://kess.chedi.re.kr/index>.
- 김건희, 황은희. 2012. 간호학과 편입생의 첫 학기 대학생생활 체험: 대학생들의 적응 및 위기 극복. *한국위기관리논집*. 8(5): 123-142.
- 김보나, 김이경. 2015. 대학 입학 선발 방식에 따른 대학생의 학교 생활 적응 차이 분석 연구. *교육문화연구*. 21(3): 5-25.
- 김순은. 2007. Q 방법론과 사회과학. 부산: 금정출판사.
- 김영경, 조명옥, 양진향. 2005. 편입생의 정체성 변화 경험. *질적연구*. 6(1): 15-31.
- 김혜정, 김보라. 2013. 무용지도자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무용성취동기 및 미래포부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기록학회*. 29: 63-81.
- 서현, 송선화. 2010. 유아교육과 신입생의 대학생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15(1): 361-391.
- 신경림, 차은정, 김영혜. 2003. 간호학과 편입생의 체험. *대한간호학회지*. 33(6): 722-730.
- 심재은. 2009. 편입생의 대학 생활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9(1): 48-49.
- 염지숙. 2009. 유아교육과 편입생들의 편입 후 대학생생활 경험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4(2): 239-263.
- 오영재. 2006. 대학 편입생들의 편입 후 대학생생활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4(2): 451-474.

Received: Dec. 6, 2016 / Revised: Feb. 6, 2017 / Accepted: Feb. 10, 2017

간호학과 편입생의 학교생활 적응 유형

– Q 방법론적 접근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과 편입생의 학교생활 적응 유형을 알아보고, 각 유형에 따라 간호학과 편입생의 적응을 돕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편입생의 대학생활 적응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Q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관련된 선행연구와 보도자료 및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Q 진술문을 구성하였으며 최종 37개의 Q 표본을 선정하였다. P 표본으로 선정된 간호학과 편입생 35명에게 Q 표본을 강제 분포시키도록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PQMethod program에 의한 주성분 요인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간호학과 편입생의 학교생활 적응 유형은 ‘미래불안형’, ‘무관심형’, ‘융화형’, ‘관계지향형’의 4가지로 유형화되었다. 이 중 ‘미래불안형’과 ‘융화형’은 적응에 있어 대체적으로 긍정적 양상을 보인 반면, ‘무관심형’과 ‘관계지향형’은 부정적인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각 유형에 따라 간호학과 편입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간호학과, 편입생, 학교생활 적응, Q 방법론

Profiles **Ick Jee Kim** : She received her Ph.D. from Kosin University, Korea. She is an assistant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at Youngsan University. Her interesting subject of research is Q Methodology, Nursing, and Nursing Education (ijkim@ysu.ac.kr).

Min Kyung Jeon : She received her M.A., Ph.D. from Kosin University, Korea. She is an assistant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at Kaya University, in which she has taught since 2015. Her interesting subject and area of research and education is Oncology nursing and Nursing management(angi99@kaya.ac.kr).

Young Suk Kim : She received her Ph. D. from Kosin University. She is an assistant professor of College of Nursing at Kosin University, in which she has taught since 2014. Her interesting subject of research is global nursing, nursing education (joy1763@hanmail.net).